

## 瑞峰寺址 佛教石造美術品の 特徴과 意義

On the features and significance of the Buddhist stone artworks discovered at the site of Seobongsa Temple

---

저자 (Authors)	陳政煥 Jin, Joung-hwan
출처 (Source)	<a href="#">문화사학</a> , (52), 2019.12, 51-79 (29 pages) <a href="#">JOURNAL OF KOREAN CULTURAL HISTORY</a> , (52), 2019.12, 51-79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문화사학회</a> Hankuk Munhwa Sa Hak Hoe, Korean Association of Cultural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8324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83245</a>
APA Style	陳政煥 (2019). 瑞峰寺址 佛教石造美術品の 特徴과 意義. 문화사학, (52), 51-7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20 15:02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瑞峰寺址 佛教石造美術品の 特徴과 意義

陳政煥\*

### 目次

- |                         |                            |
|-------------------------|----------------------------|
| I. 머리말                  | IV. 瑞峰寺址 佛教石造美術品の 造成背景과 意義 |
| II. 玄悟國師塔碑의 現狀과 特徴      | V. 맺음말                     |
| III. 佛教石造美術品 部材의 現狀과 特徴 |                            |

### 요약

瑞峰寺는 보물 제9호로 지정된 玄悟國師塔碑(1185년)가 있으며, 조선 태종 때에는 資福寺로 지정되기까지 한 이 지역의 거점 사원이었다. 이러한 서봉사지에 대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6단의 계단식 대지 위에 수많은 건물을 조성하였음이 밝혀졌다.

본고는 서봉사의 佛教石造美術品을 중심으로 서봉사의 역사를 재구성해보고 그 배경과 의의를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오국사탑비와 석탑·석불 관련 불교석조미술품 부재들의 현상과 특징을 파악해보고, 그 조성시기를 유추해보았으며, 서봉사 중건 과정을 재구성하고, 조성배경과 미술사적·불교사적 의의를 밝혀보았다.

이를 토대로 서봉사의 역사를 재구성해보면, 서봉사는 10세기 후반 고려 왕실의 왕권강화를 위해 화엄종 소속으로 창건되었다. 창건 당시 서봉사에는 석탑과 불상이 조성되었는데, 이들은 다음 시기 용인지역 석탑과 석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185년에는 무신정변과 왕자로서 출가하였던 충희의 비행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왕실과 화엄종단은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당시 존경받던 현오국사의 탑비를 화엄종 사찰이었던 서봉사에 건립한다. 다만, 왕실 내 불교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당시의 새로운 사조인 유교적 양식과 규범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탑비는 기존의 화려한 장엄을 버리고 왕실의 묘지명과 유사한 형태로 변모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몽골 침입 시 서봉사는 망폐되고 마는데, 개경 환도 이후 권문세가에 의해 절이 중창되면서 화엄종에서 당시 중창주의 소속 종파인 천태종으로 그 소속으로 바뀌고 만다. 한편, 유교를 전면으로 내세운 조선에서도 서봉사의 법당은 꺼지지 않았다. 태종대에는 자복사로 지정되기까지 하였다. ‘成化三年’명 기와와 ‘嘉靖三十二年’명 기와에서 알 수 있듯, 15~16세기까지도 가람은 중수되었다. 한편, 전란 이후에도 없어진 비부를 다시 만들고 탑비를 이전하였지만, 결국은 법당은 사그라지고 만다.

[주요 단어] 서봉사, 현오국사, 고려, 화엄종, 자복사

\*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관

## I. 머리말

瑞峰寺址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0번지, 광교산에 자리 잡고 있다. 光教山은 용인, 의왕, 수원 등에 넓게 분포하는 경기 남부지역의 名山 가운데 하나이다. 이 광교산 자락에는 서봉사지뿐만 아니라 彰聖寺址, 美鶴寺址, 城北洞寺址, 白雲寺址 등 고려시대 이후 사찰들이 분포하고 있다.<sup>1)</sup> 이렇게 수많은 사찰들이 광교산에 자리 잡았던 이유는 아마도 광교산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공히 교통로 상의 중요한 結節地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sup>2)</sup> 결정지로서 이 지역의 중요성은 조선시대 壬辰倭亂 당시 下三道의 勤王兵들과 왜군이 벌인 전투가 이 광교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서도 확인된다.<sup>3)</sup> 한편, 이렇게 교통로상의 중요 거점에 조성된 사찰은 불교사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교통로의 비보를 위한 상징성 의미<sup>4)</sup>와 함께 국난 시에는 군대 주둔,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sup>5)</sup>

광교산 사찰 가운데에서도 瑞峰寺는 보물 제9호로 지정된 玄悟國師塔碑(1185년)가 있으며, 조선 태종 때에는 資福寺로 지정되기까지 한 이 지역의 거점 사원으로 보인다. 이러한 서봉사지에 대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6단의 계단식 대지 위에 수많은 건물을 조성하였음이 밝혀졌다.<sup>6)</sup>

본고에서는 서봉사의 역사와 위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 가운데에서도, 佛敎石造美術品을 중심으로 서봉사의 역사를 재구성해보고 그 배경과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II장과 III장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현오국사탑비와 석탑·석불 관련 불교석조미술품 부재들의 현상과 특징을 파악해보고, 그 조성시기를 유추해볼 것이다. 이어서 IV장에서는 현오국사탑비를 포함한 서봉사의 불교석조미술품을 통해, 서봉사 중건 과정을 재구성하고, 조성배경과 미술사적·불교사적 의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단순히 서봉사의 역사나 그 가치를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이르기까지 서봉사의 미술사적·불교사적 위상이 어떠하였는지를 밝히는 단초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嚴基杓, 「水原 彰聖寺의 沿革과 眞覺國師 千熙의 史蹟」, 『文化史學』 39, 韓國文化史學會, 2013, pp.99~100; 한신대학교 박물관, 『수원 창성사지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약보고서』, 한신대학교 박물관, 2014.

2) (재)한백문화재단연구원, 『용인 서봉사지-시굴 및 1차 발굴조사』, 용인시·(재)한백문화재단연구원, 2015, pp.166~168.

3) (재)한백문화재단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5, pp. 166~170.

4) 陳政煥, 「後百濟 佛敎美術品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 11, 東岳美術史學會, 2010, pp.158~165.

5) 한정호, 「新羅 寺刹의 社會的 機能과 嘉瑟岬寺」, 『불교미술사학』 5, 불교미술사학회, 2007, p.26.

6) 김종길, 「서봉사지 발굴조사 현황 및 성과」, 용인 서봉사지 학술대회 자료집 『용인 서봉사지』, 용인시·(재)한백문화재단연구원, 2016, pp.9~38.

## II. 玄悟國師塔碑의 現狀과 特徵

서봉사지 불교석조미술품은 탑비, 석탑, 불상대좌 등과 관련된 것이 있다. 이 가운데 보물 제 9호로 지정된 현오국사탑비만 거의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조성시기를 알 수 있을 뿐이며, 석탑 등 불교석조미술품 부재는 지대석과 함께 일부 부재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면, 현오국사탑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과연 玄悟國師가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현오국사는 이름이 宗璘이고, 자는 重之, 속성은 王氏로 1127년에 태어나 1179년에 入寂하였다. 일부 논문이나 자료에서 종린을 仁宗(재위 1122~1146)의 왕자로 기록하기도 하나,<sup>7)</sup> 비문에 그의 부친이나 조상을 알 수 있는 명확한 단서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의 出系와 관련해서는 비문에 등장하는 帶方公이라는 인물과 ‘다른 아이들과 본질적으로 달랐다’고 한 문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종린과 대방공이 매우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암시하는 문구라고 생각한다(사료 A).

[사료 A] 스님의 휘는 宗璘이요, 자는 重之며 속성은 王氏이다. 帶方公 (결락) 主 (결락) 不 (결락) 器宇가 宏深하여 다른 아이들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sup>8)</sup>

대방공 王備는 숙종의 4자로, 睿宗(재위 1105~1122)과 圓明國師 澄儼(1090~1141)의 동생이었다. 왕보는 인종 즉위 직후인 1122년 경산부로 추방되었다가 1128년 유배지에서 죽었다. 그런데, 『高麗史』에는 그의 아들로 王瑜만 등장할 뿐이다.<sup>9)</sup> 앞서의 추측대로 종린이 대방공 왕보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면, 왕보의 행적과 종린의 출생연도를 고려할 때 종린은 왕보가 경산부에 유배되었을 당시 태어난 庶子일 가능성이 높다(사료 B).

[사료 B] 李資謙이 모함에 얽어서 京山府로 쫓겨 갔는데, 이자겸이 敗亡하자 仁宗이 그를 부르려고 하던 차에 인종 6년(1128)에 유배지에서 죽었다.<sup>10)</sup>

아마도 왕보 사후 숙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인종이 왕실의 화합을 위해 종린을 또 다른 숙부인 원명국사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종린은 宗室이라는 자격으로 궁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歸信寺, 國泰寺, 重興寺, 浮石寺 등 주요 사찰의 주지를 맡을 수 있었으며, 首座, 僧

7) 박상준, 「고려 후기 탑비, 전통양식의 계승과 변화」, 『東岳美術史學』 17, 東岳美術史學會, 2015, p.687.

8)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伽山文庫, 2000, p.481.

9) 『高麗史』 卷90, 列傳3, 宗室, 肅宗. “帶方公備 …… 子瑜 娶通義侯女 仁宗十九年卒”

10) 『高麗史』 卷90, 列傳3, 宗室, 肅宗. “後爲李資謙所構 放京山府 及資謙敗 仁宗欲召還 六年卒于貶所”

統을 거쳐 佐世라는 호를 더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明宗의 命에 의해 內殿에 초빙되고 百高座會를 주관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그가 1179년 6월 29일 입적하자, 개경 동남쪽 歸法寺에 유해를 임시로 안장하였으며, 7월 16일에는 국사로 책봉하였고, 그 다음날 茶毗하고 11월에는 長湍縣 大倬山에 안치하였다(사료 C).

[사료 C] 仁廟께서 …… 圓明國師에게 명하여 …… 15살 때 佛日寺에 나아가서 比丘戒를 받았으니, 辛酉年 12월이었다. 仁廟께서 항상 宮內의 도량에 국사를 청하여 강론하였는데 …… 毅宗 元年 丙寅에 批書를 내려 首座로 進級하였다. 그 후 歸信·國泰·重興·浮石等寺를 차례로 住持하였다. …… 一代에 걸쳐 四部大衆의 雅望의 대상이었으므로, 이에 拜命하여 僧統으로 추대하였다. 庚寅年에 이르러 지금의 명종 임금께서 즉위하여 다시 佐世란 호를 첨가하였다. 辛卯年 가을에 內殿으로 초빙하여 滿繡袈裟 한 바탕을 하사하였다. 그 해 겨울에 이르러 百高座會를 열고 …… 6월 29일 …… 入寂하였다. 開京 동남쪽 歸法寺에 遺骸를 임시 安葬하였다. …… 7월 16일 殿中少監 任忠質 …… 등을 보내 국사로 책봉하며 시호를 玄悟라고 追贈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17일 東林山 기슭에서 茶毗하고, 이 해 11월에 長湍縣 大倬山에 安厝하였다.11)

요컨대 종린의 유골은 개경 인근 대택산에 모셨다는 것인데,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서봉사에 탑비가 세워진 이유가 자못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현오국사탑비(그림 1)는 고려시대 국사나 왕사의 탑비와 달리 장방형의 碑趺와 碑身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비신을 받치는 비부(그림 2)는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흔히 盞頂形이라고 일컫는 형태를 띠고 있다. 입면의 형태는 장방형을 이루는 하단과 사다리꼴을 보이는 상단의 2단으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며, 경사진 상단 네 모서리에는 얇은 돌대가 彫出되어 있다. 비부 상단에는 비석을 쫓는 부분인 碑座가 움푹 파여 있고 그 주변에는 突帶를 彫出하였다. 현오국사탑비 비부에는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이나 불교미술품에 등장하는 眼象이 전혀 새겨져 있지 않다. 비신(도 3)은 이수가 없는 만큼 전형적인 직사각형의 형태에서 벗어나 상부의 귀퉁이를 잘라 6각형의 평면을 보인다. 이를 두고 흡사 玉으로 만든 笏의 뾰족한 형태와 유사하다고 여겨 ‘圭形’, ‘圭角形’ 또는 ‘圭首形’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이 비신은 비부와 달리 여러 가지 문양이 배풀어져 있는데, 상단에는 渦文帶를 두른 篆額이 있고, 비신의 가장자리로 일정한 文樣帶를 두고 鳳凰文과 寶相唐草文을 새겼다.

11) 李智冠, 위의 책, 2000, pp.418~482.



그림 1 瑞峰寺址 玄悟國師塔碑



그림 2 玄悟國師塔碑 碑趺



그림 3 玄悟國師塔碑 碑身

이러한 현오국사비의 특징은 무엇이고, 다른 시기 탑비와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해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탑비가 건립된 新羅 下代부터 高麗 末까지의 탑비의 양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12)</sup>

탑비는 禪師나 國師 또는 王師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기록상 최초의 탑비는 신라 中代에 활약한 信行禪師(704~779)가 입적하고 34년 후에 건립된 山淸 斷俗寺 信行禪師塔碑(813년)이지만, 본격적인 건립은 9세기 선종의 확산 이후이다. 실물로 남아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신라에서 산문을 가장 먼저 개창한 洪陟의 탑비인 南原 實相寺 證覺大師凝寥塔碑(그림 4)이다.<sup>13)</sup> 홍척은 實相山門을 開創한 인물로 신라 최초로 왕실의 歸依를 받은 禪師이기도 하다. 그의 탑비는 중국 唐碑나 7세기 조성된 太宗武烈王陵碑와 동일하게 전형적인 거북머리 龜趺에 半月形 螭首를 얹은 형식이다. 이는 초기 탑비 탄생에 신라 왕실 陵儀石物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말해준다.<sup>14)</sup>

그런데 중강대사탑의 뒤를 이은 신라 선사 탑비는 귀부의 거북머리가 용머리로 대체되고, 이수도 비신보다 넓은 장방형으로 변모한다. 그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872년에 조성된 谷城 泰安寺 寂忍禪師塔碑(그림 5)이며, 그 뒤를 이어 長興 寶林寺 普照禪師塔碑(884년), 河東 雙溪寺 眞鑑禪師塔碑(887년) 등이 조성되었다.

後三國期の 分열과 高麗의 통일, 왕권 강화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점철되었던 10세기는 왕

12) 이와 관련하여서는 朴相俊과 金송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朴相俊, 『新羅 下代 塔碑 研究』, 『講座美術史』 29,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07.12, pp.11~43; 金송이, 『高麗時代 塔碑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6; 박상준, 앞의 논문, 2015, pp.675~696.

13) 진정환, 「신라 하대 선종 미술의 모태, 실상산문의 불교미술품」, 『전북사학』 53, 전북사학회, 2018.7, pp.25~30.

14) 신라 왕릉 陵儀石物에 대한 사항은 李根直의 논문이 참고가 된다. 李根直, 『新羅 王陵 起源과 變遷』,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 pp.245~267.



그림 4  
實相寺 證覺大師凝寥塔碑



그림 5  
泰安寺 寂忍禪師塔碑



그림 6  
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碑

실이 불교계를 포섭하기 위해 많은 탑비를 조성하였다. 이 시기 탑비 역시 9세기 탑비와 마찬가지로 龍頭龜趺에 장방형 이수가 결합된 형식이다. 그러나 11세기 이후에는 국사와 왕사에 국한하여 탑비를 조성하였기 때문에 탑비의 건립 조성 사례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 탑비 역시 비록 法泉寺 智光國師玄妙塔碑(1085년)(그림 6)처럼 표면 장엄이 극대화한 경우도 있지만, 용두귀부에 장방형 이수로 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형태의 탑비는 永同寧國寺 圓覺國師塔碑(1180년), 康津 月南寺 眞覺國師塔碑(1250년), 高陽 太古寺 圓證國師塔碑(1385년)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 퇴화되기는 하지만 고려 말까지 꾸준히 재현되었다.<sup>15)</sup>

12세기부터는 새로운 형식의 탑비가 등장하는데, 陝川 般若寺 元景王師塔碑(1125년), 開京 靈通寺 大覺國師塔碑(1125년), 漆谷 僊鳳寺 大覺國師塔碑(1132년) 등과 같이 이수가 지붕돌 형태의 것으로 변모한 탑비가 등장한다. 이 가운데, 영통사 대각국사탑비의 경우에는 실제 지붕 처럼 서까래를 표현하기까지 하였다. 반면, 선봉사 대각국사탑비는 이수뿐만 아니라 귀부까지도 장방형의 석재로 변모하였다.

한편, 현오국사탑비는 탑비 가운데 龜趺螭首形 탑비에서 벗어난 方趺圭首形으로 변모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보다 늦게 조성된 浦項 寶鏡寺 圓眞國師塔碑(1224년)가 귀부와 규수형 비신이 결합된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면, 방부규수형의 서봉사 현오국사탑비는 당시 상당한 파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14세기 말 조성된 楊州 檜巖寺 禪覺王師塔碑(1377년)는 龍頭龜趺, 비신, 이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신과 이수가 한 몸이라는 점은 앞 시기 탑비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형식이다. 이렇게 이

15) 文明大, 「高麗後期 端雅樣式(新古典的樣式)佛象의 成立과 展開-坐像을 중심으로-」, 『古文化』 22, 韓國大學 博物館協會, 1983, pp.33~71.

수와 비신이 분리되지 않은 귀부이수형 탑비는 그 이전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조성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唐代부터 元代까지 비석의 일반적 형태로 자리 잡고 있었다. 같은 시기 원나라 불상 양식이 고려에 유입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sup>16)</sup> 회암사 선각왕사탑비 역시 원나라 비석의 영향을 받아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는 多段의 비부와 옥개석을 결합한 驪州 神勒寺 普濟尊者塔碑(일명 普濟尊者石鍾碑)(1379년)와 같은 독창적인 탑비도 등장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려시대 탑비 조성의 경향을 요약하면, “前時期 시기 양식의 계승과 변용”, “외래양식 유입과 전통양식의 재해석”이라는 고려시대 불교석조미술의 양상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그렇다면, 이제부터 현오국사탑비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다.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먼저 비부를 검토해보겠다. 이와 관련하여 방부를 갖춘 탑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선봉사 대각국사탑비(1132년)(그림 7)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봉사에는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탑비가 있는데, 무려 그가 입적한 뒤 31년이 지난 후에 세워졌다. 1101년 의천이 입적하자 곧바로 영통사 동쪽 석실에 유골을 안치하면서 朴浩가 墓誌를 지었고, 1103년에는 영통사 서북쪽에 敬先院을 짓고 尹瓘(?~1111)이 讚한 탑비를 건립하였다.<sup>18)</sup> 그런데, 모종의 이유로 윤관이 주도하여 세운 비석은 1111년 현재 영통사 대각국사탑비가 있는 곳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하고 윤관이 찬한 탑비는 의천을 따르던 화엄종계 문도들에 의해 1125년에 金富軾(1075~1151)이 찬한 현존 탑비로 대체되었다.<sup>19)</sup> 그 배경과 관련하여, 1111년부터 1125년 사이 金의 건국과 그에 따른 고려 조정 내 외교정책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sup>20)</sup> 영통사에 대각국사의 탑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은 1129년 5월 南嵩禪寺에 대각국사의 비를 세우라고 명한다. 이에 따라 천태종계 문도들에 의해 1135년 南嵩山 선봉사에 대각국사의 비가 건립된 것이다.

1103년 윤관의 주도로 건립한 탑비는 없어졌으니 그 원형을 알 수 없고, 1125년 김부식이 비문을 지은 대각국사탑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용두형 귀부와 옥개형 이수가 특징이다. 반면, 선봉사 대각국사탑비는 3단으로 구성된 방부와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의 이수를 단순화한 이수를 갖추고 있다.

16) 鄭恩雨, 「고려 후기 불교조각가의 원의 영향」, 『震檀學報』 114, 震檀學會, 2012. 4, pp. 337~361.

17) 陳政煥, 『高麗前期 佛教石造美術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pp. 175~189; 진정환, 「益山 深谷寺 七層石塔 出土品의 特徵과 性格」, 『전북사학』 45, 전북사학회, 2014. 10, pp. 433~460.

18) 崔箕杓, 「大覺國師의 遺骨安葬과 立碑過程 再考」, 『韓國佛敎學』, 韓國佛敎學會, 2006, pp. 10~14.

19) 崔연식, 「大覺國師碑의 建立過程에 대한 새로운 고찰」, 『韓國史研究』 83, 韓國史研究會, 1993. 12, pp. 44~45.

20) 崔箕杓, 위의 논문, 2006, pp. 15~16.



그림 7  
僊鳳寺 大覺國師塔碑



그림 8  
妙香山 普賢寺 事蹟碑(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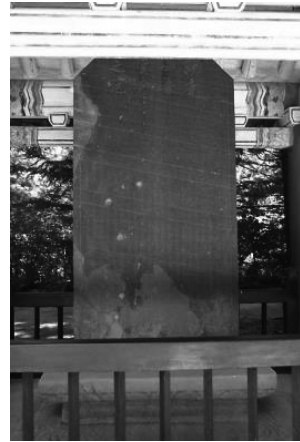


그림 9  
妙香山 普賢寺 事蹟碑(現)

선봉사 대각국사탑비 비부는 비신에 비해 그 폭이 넓은 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세부형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대석은 낮으며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梯形의 석재이다. 비부는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下臺下石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고 下臺上石에는 끝이 뾰족한 단판의 伏蓮을 새겼다. 중대는 우주와 탕주만 새겼는데, 각 기둥에는 단차가 나는 세로 돌대가 양각되어 있다. 상대 역시 하대와 동일한 형태인 뾰족한 단판의 仰蓮을 새겼다. 비부의 윗면 중앙에는 비신을 뜻하는 비좌를 마련하였고 그 주변을 복련으로 장식하였다. 비신 상단과 측면에 문양대를 두었는데, 상단 문양대 중앙에는 별다른 장식 없이 ‘天台始祖大覺國師碑銘’이라는 전액이 있다. 이수는 玄化寺 事蹟碑(1022년), 법천사 지광국사현묘탑비(1085년) 등 11세기 탑비의 이수처럼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를 보이지만, 형태가 불명확하고 雲文의 조각이 투박하여 마치 옥개석 같은 느낌도 준다.

한편, 지금까지 현오국사탑비의 단층 비부의 원류를 妙香山 普賢寺 事蹟碑(1141년)(그림 8·9)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sup>21)</sup> 그러나 보현사 사적비 비각이 설치되기 전 사진을 보면 조잡한 단층 복련의 방형비부이다. 그런데, 보호각이 만들어진 후의 사진을 살펴보면 3단의 방형 받침으로 변모하였는데, 복련 방형비부가 상대적으로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비부의 원형은 선봉사 대각국사탑비와 비슷한 3단 받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선봉사 대각국사탑비는 물론 사적비인 보현사 사적비까지도 안정감을 주는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엄이 배풀어져 있어, 비석의 격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오국사

21) 박상준, 앞의 논문, 2015, p.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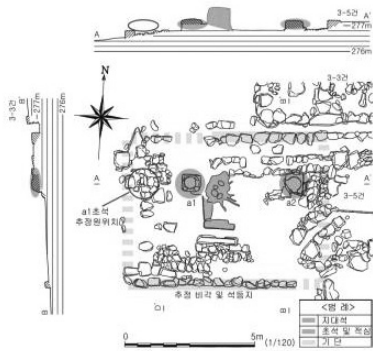


그림 10 (推定)碑閣址 圖面



그림 11 (推定)碑閣址 寫眞

탑비의 비부는 비신을 돋보이기 위한 어느 요소도 찾아볼 수 없다.<sup>22)</sup> 이러한 특징은 현오국사 탑비보다 한참 뒤에 건립된 신록사 보제존자탑비(1379년), 陽平 舍那寺 圓證國師塔碑(1386년), 水原 彰聖寺 眞覺國師塔碑(1386년)의 비부와도 비교된다. 특히, 창성사 진각국사탑비는 비록 뚜렷한 장엄은 없지만, 치석이 매우 단정하여 선봉사 대각국사탑비와 그 격을 달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굴에서 확인된 (추정)碑閣址(그림 10·11)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각 지는 3단 서편에서 확인되었는데, 주좌초석 및 적심 등이 확인되었다. 한편, 주좌초석 하부에서 황갈색 모래층이 확인됨에 따라 이 비각지가 탑비 건립 당시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sup>23)</sup> 다만, 3단에서도 고려시대 건물지의 흔적이 확인되고 그 주변으로 고려시대 청자류와 명문와 등이 출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sup>24)</sup> 조선시대 전형적인 ‘四棟中庭’형 가람의 서쪽 요사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sup>25)</sup> 탑비 건립 당시의 비각이 (추정)비각지 일대에 있었을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

탑비의 격에 맞지 않는 현오국사탑비의 비부는 다른 방형비부 탑비와의 비교 및 발굴 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현재의 비부는 수해·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비부가 유실 또는 파괴된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던 진각국사탑비의 精緻한 비부와 비교해볼 때, 고려 말 이전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IV

22) 한편, 1147년에 조성된 淸道 雲門寺 圓鷹國師碑의 비부는 그 형태가 현오국사탑비의 비부와 유사하다. 그런데, 운문사 원웅국사비는 이수가 사라졌고 비신도 조각나 있는 등 파손이 심한 편이다. 임진왜란 때 훼손된 것을 후대에 조성하였다고 전한다. 이러한 여러 정황들은 원웅국사비의 비신과 비부가 제작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어,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23)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용인 서봉사지 II-2·3차 발굴조사』, 용인시·(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pp.199~201.

24) 김종길, 앞의 논문, 2016, p.13.

25) 김종길, 앞의 논문, 2016, pp.21~26.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어서, 현오국사탑비의 또 다른 두드러지는 특징인 상부 모서리를 잘라낸 소위 ‘규수형’ 비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형식은 중국에서는 西安 碑林博物館 所藏 曹全碑(185년)에서 확인할 수 있듯, 後漢代부터 등장한다.<sup>26)</sup>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묘향산 보현사 사적비에서부터 이러한 형식이 등장한다. 그렇다고 하여, 보현사 사적비를 규수형 탑비의 원형으로 볼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보현사 사적비가 조성되기 앞서 墓誌銘에서도 이러한 모양의 석판이 사용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인 보현사 사적비보다 8년 앞서 제작된 福寧宮主 王氏 墓誌銘(1133년)(그림 12)이다. 상단에 전액은 없지만, 상단 장식문양대와 비문을 명확하게 구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오국사탑비의 비신의 구성과 같다.

귀족의 묘지명에서 상단 모서리를 자른 것을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玄化寺 住持 闡祥 買地權(1141년)처럼 문양대 없이 바로 글씨만 새긴다거나 崔允儀 妻 金氏 墓誌銘(1152년)(그림 13)처럼 외곽에 문양만 두르는 등 종실인 북녕궁주의 묘지명과는 그 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들을 본다면, 현오국사탑비가 앞 시기 탑비와 다른 형태의 비신을 갖춘 이유는 결코 建碑를 주도한 門徒勢力이나 碑主의 위상이 낮았기 때문이 아니라,<sup>27)</sup> 오히려 그 원류가 종실의 묘지명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12  
福寧宮主 王氏 墓誌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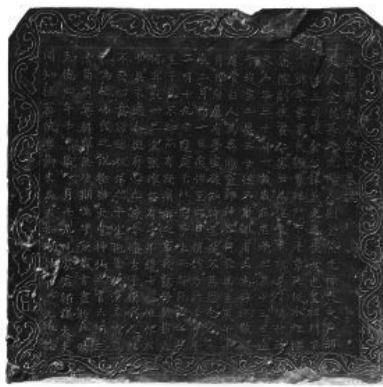


그림 13  
崔允儀 妻 金氏 墓誌銘



그림 14  
崔宰 墓誌銘

26) 金송이, 앞의 논문, 2006, p.89.

27) 박상준, 앞의 논문, 2015, p.687.

한편, 비석처럼 세운 崔宰 墓誌銘(1151년)(그림 14)과 현오국사탑비 영향 관계가 제기되기도 하지만,<sup>28)</sup> 최재 묘지명의 대석은 폭이 좁고 앞면에만 조악한 연판문을 조각하는 등 오로지 '세운다'는 기능에 충실히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모서리 형태, 장식문양, 배치 등에 있어 복녕궁주 묘지명이나 현오국사탑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최재 묘지명이 현오국사탑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서봉사 현오국사탑비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첫째, 현재의 현오국사탑비는 최소 2차례 옮겨졌으며, 조성 당시의 원형은 아닐 것이다. 둘째, 비부는 규모·장엄·치석 등의 수법을 보았을 때, 후대에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규수형 비신은 조성을 주도한 문도세력이나 비주의 격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왕실의 예법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오국사탑비의 특징이 갖는 숨意는 IV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III. 佛教石造美術品 部材의 現狀과 特徵

서봉사지 발굴에서 (推定)石塔址와 (推定)石燈址가 확인되었다.<sup>29)</sup> 그런데, 서봉사지에 현재 남아 있는 불교석조미술품 부재는 석탑과 석불 대좌와 관련된 것들만이 확인된다.

먼저, 석탑지와 석탑 부재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서봉사지 석탑지(그림 15)는 앞서 살펴본 비 각지와 마찬가지로 3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동중정형 가람의 동편 바깥쪽에 있는 점이 다르다. 석탑지 발굴조사에서는 3매의 지대석은 원위치에 나머지는 1매는 동쪽으로 2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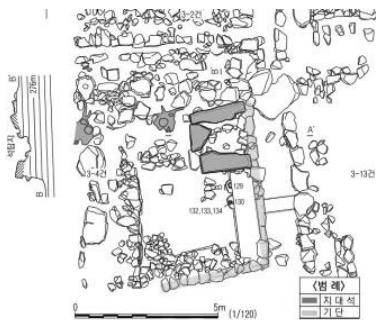


그림 15 (推定)石塔址 發掘 後 狀態



그림 16 (推定)石塔址 發掘 前 狀態

28) 金송이, 앞의 논문, 2006, p.89.

29)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6, pp.199-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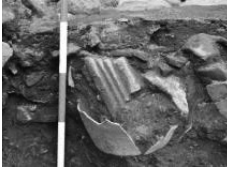


그림 17 露盤出土狀態



그림 18 下層基壇



그림 19 上層基壇 甲石



그림 20 屋蓋石

한편, 지대석 중앙부에는 위부터 황갈색사질점토층-소형 할석-기와 편과 황갈색사질점토층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점토와 할석을 교차하여 석탑의 기초를 다짐하는 것은 신라 일반형 석탑인 慶州 味吞寺址 三層石塔에서도 확인되는 등 일반적인 석탑의 基底部 조성 방식이라 할 수 있다.<sup>30)</sup> 그런데, 그 아래에서 앞선 시기 유구로 추정되는 건물지 기단이 일부 확인되어, 석탑도 移建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31)</sup>

발굴 전 상태(그림 16)를 보면, 지대석 주변으로 여러 석재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측면에 안상이 새겨진 방형 석재, 상·하층 기단의 갑석과 면석으로 추정되는 5점 내외의 석재, 2층 혹은 3층 탑신으로 여겨지는 탑신석, 그리고 3층 옥개석으로 추정되는 석재 등이 확인되었다. 아울러, 노반(그림 17)도 추락하여 진단구로 추정되는 土器瓮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안상이 새겨진 부재(그림 18)는 하층기단의 면석으로 추정된다. 현재 안상은 완벽한 1석과 절반 정도 남은 것이 있는데, 부재의 잔존 크기나 지대석 너비 등을 고려할 때, 한 면당 3개의 안상이 조각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잔존 기단 부재의 형태나 크기로 볼 때, 하층기단 갑석, 상층기단 면석 등은 모두 몇 장씩의 돌들을 짜맞추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서봉사지 석탑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층기단 갑석으로 추정되는 부재(그림 19)는 2단 탑신받침에서 모서리까지 약간의 경사가 있고 두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의 윗면은 지붕의 우동마루처럼 약간 돌출되어 있다. 옥개석(그림 20)은 옥개받침은 높지 않아 평박한 편이며 지붕 경사면은 유난히 깊게 파여 있다.

안상을 새긴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상층기단에 안상을 새긴 8세기 후반의 慶州 鑿藏寺址 삼층석탑이다. 9세기 이후에는 주로 하층기단에 안상이 새겨졌으며,<sup>32)</sup> 고려시대 석탑 표면장엄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서봉사지 하층기단의 안상은 星州 法水寺址 三層石塔, 梁山 通度寺 三層石塔 등 소위 신라 정형기 석탑의 안상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sup>33)</sup> 河南 下司倉洞(桐寺址)

30) 국립경주박물관, 『味吞寺址』, 국립경주박물관, 2007, pp.30~43.

31)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6, pp.199~200.

32) 秦弘燮, 「韓國의 眼象紋樣」, 『東洋學』 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4, pp.247~294; 김지현, 「통일신라시대 眼象文 석탑 고찰」, 『文物研究』 27, 동아문화재단, 2015.3, pp.61~98.

33) 여러 모습의 안상 가운데, 좌우측 호선이 위로 갈수록 넓어지고 윗면은 작은 호선들이 연속되는 안상에 대

三層石塔,<sup>34)</sup> 原州 興法寺址 三層石塔 등 고려 초 석탑의 안상과도 동일한 형식이다.

서봉사지 석탑은 특히 신라 석탑을 계승한 하사창동 삼층석탑의 특징-안상이 새겨진 하층기단 면석, 경사진 상층기단 갑석, 폭이 좁은 귀기둥, 평박한 옥개석 등-과 유사하다.<sup>35)</sup> 이로써 서봉사지 석탑은 961년 조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하사창동 삼층석탑과 비슷한 시기인 10세기 후반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sup>36)</sup>

그렇다면, 서봉사지 석탑 부재가 용인지역 석탑과 어떤 관계인지가 궁금해진다. 용인지역에 건립된 고려시대 석탑과 비교해보겠다. 용인지역의 고려시대 석탑 중 지정된 석탑은 魚肥里 三層石塔(경기도 유형문화재 194호), 貢稅里 三層石塔(경기도 문화재자료 42호), 法輪寺 三層石塔(경기도 문화재자료 145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원형이 가장 잘 남아 있는 어비리 삼층석탑을 먼저 살펴보겠다. 이 석탑은 중층기단과 3층의 탑신부로 구성된 일반형 석탑이다. 그러나 별석의 받침, 1층 탑신에 비해 2층 탑신이 급격히 축약된 점, 옥개석의 전각이 위로 치켜 올라가 경쾌한 느낌을 주는 점, 그리고 낮고 좁아진 옥개받침 때문에 옥개석이 비교적 평박한 점에서 고려 신앙식 석탑을 선도한 論山 開泰寺 石塔과 江陵 神福寺址 石塔의 영향이 모두 간취된다.<sup>37)</sup> 한편, 공세리 석탑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고려시대 신앙식 석탑의 하나인 서울 弘濟洞 五層石塔과 유사하다.<sup>38)</sup> 반면, 법륜사 삼층석탑은 신라 일반형 석탑이 퇴화된 양상이 강하다.

고려시대 석탑 양식 전개상 서로 다른 양식 상호간 절충되고 조형성을 잃는 시기가 11세기 말 이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sup>39)</sup> 용인지역의 석탑들은 서봉사지 석탑보다 늦은 11세기 말~12세기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서봉사지 석탑은 용인지역 최초의 석탑이며, 어비리 석탑의 모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어서, 발굴자가 석등지로 추정된 것에 대해 살펴보겠다. 발굴자는 (추정)비각지가 폐기된 후 설치된 ‘ㄴ’자형으로 남아 있는 지대석 2매를 (추정)석등지로 파악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 秦弘燮는 ‘연호형’으로, 박경식은 ‘화염문’으로, 김지현은 ‘침두-운문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秦弘燮, 앞의 논문(1974), pp. 247~294 ;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p.151 ; 김지현, 위의 논문, 2015.3, p.76, 표 7 참조.

34) 이 석탑은 961년 고려 光宗(재위 949~975)이 廣州地域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 조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嚴基杓, 『河南 春宮洞 3層과 5層石塔 建立 時期와 依依』, 『先史와 古代』 34, 한국고대학회, 2011.6, pp.305~329.

35)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pp.78~79.

36) 嚴基杓, 위의 논문, 2011.6, p.315.

37)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pp.117~124 ; 진정환, 『통일왕조 고려의 상징, 개태사 불상과 석탑』,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태조 왕건과 개태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국립부여박물관, 2018, pp.62~77.

38)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pp.121~124.

39)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pp.188~189.



그림 21 下臺下石 1



그림 22 下臺下石 2



그림 23 下臺上石



그림 24 石佛坐像片

발굴지는 3-5B건물지 지표 위에서 지름 95cm인 팔각대좌를 석등과 관련된 부재로 파악한 바 있다.<sup>40)</sup>

우선적으로 팔각대좌가 석등 대좌인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팔각대좌 각 면에는 석탑의 안상과 유사한 안상을 비롯하여 사자상과 향로로 추정되는 조각이 있다(그림 21·22). 특히, 사자상은 마모가 심하기는 하지만, 금방이라도 뛰어나갈 것 같은 역동성을 느낄 수 있다. 한편, 향로 추정되는 조각은 1면에서만 새겨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1면에 향로를 새기고 나머지 면에는 사자를 새긴 하층기단석은 석등에서보다는 榮州 浮石寺 慈忍堂 石佛坐像, 國立中央博物館 소장 石造毘盧遮那佛坐像 등 9세기 후반의 통일신라 불상 대좌에서 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sup>41)</sup>

또한, 사지 주변에서는 팔각연화대좌 2종, 중대석으로 추정되는 팔각석재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하대상석(그림 23)으로 추정되는 연화대좌는 신라 景文王代(861~875) 등장한 굽형받침이 있다.<sup>42)</sup> 그런데, 別石처럼 된 두툽한 굽형받침 윗면에 조출된 얇은 단은 석등 간주석을 올려놓기에는 불필요하게 넓어, 앞서 살펴본 팔각대석과 한 짝인 하대석의 하대상석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중대석으로 보이는 팔각 부재의 조각상은 마멸이 심하기는 하지만, 笙簧처럼 생긴 형체가 어렵듯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奏樂天人像일 가능성이 높다. 앞서 하대상석으로 추정된 부재와 다른 형태의 연화대좌는 角-弧-角의 3단 받침만 있어 상대석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1차 조사 당시 석불(그림 24)의 일부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상은 복부와 무릎, 손 일부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전체적인 모습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왼손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아 고려전기까지 빈번하게 조성된 降魔觸地印을 맺은 불상일 가능성이 높다.<sup>43)</sup> 다만, 극히 일부만 남아 있어 이 불상이 대좌와 제짝인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

한편, 서봉사지 석불대좌는 용인지역에서 고려전기에 조성된 불상인 東度寺 石佛坐像 대좌

40)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앞의 보고서, 2016, p.201 ; 김종길, 앞의 논문, 2016, pp.28~29.

41)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pp.24~36.

42) 朴慶植, 「新羅 景文王代の 石造美術에 關한 研究-基壇部 樣式을 中心으로-」, 『史學志』 22, 韓國사학회, 1989.6, pp.85~136.

43)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pp.67~78.

와 동일한 구성 방식을 보인다. 그러나 동도사 석불대좌 하대하석의 사자상은 생동감이 떨어지고 연관문은 도식화되어 있다. 이로써 서봉사지 석불대좌가 더 동도사 상보다는 앞선 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서봉사지 불상 대좌 부재는 구성은 물론 조각양식에서도 9세기 후반 석불대좌와 유사성을 보이고 있어, 빠르면 9세기 말 아무리 늦어도 10세기 말을 넘지 않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봉사지 불교석조미술품 부재는 통일신라 불교미술품과의 친연성이 매우 강하다. 그렇지만, 석탑 부재에서는 고려 건국 이후 새롭게 등장한 불교미술품의 영향도 확인됨에 따라, 서봉사지 불교석조미술품의 조성시기는 두 부재의 추정시기가 겹치는 10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 IV. 瑞峰寺址 佛教石造美術品の 造成背景과 意義

지금까지 1185년에 건립된 현오국사탑비와 더불어 서봉사지 불교석조미술품 부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서봉사는 10세기 후반 창건되어 12세기 말 현오국사탑비 건립과 함께 중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봉사의 창건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절터에서 수습된 羅末麗初期 기와에서 어느 정도 증명된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다만, 태조 왕건이 訓要十條 가운데 두 번째로,<sup>45)</sup> 신라 멸망의 이유를 불교계가 왕실의 통제를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있어,<sup>46)</sup> 만약 고려 초에 서봉사가 창건되었다면 국가의 공인 아래 조영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현재의 현오국사탑비는 최소 2번 이상 옮겨졌던 것이며, 소위 녹정형의 비부는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규수형 비신은 왕실의 장례 예법과 관련되어 등장한 형식으로 추론하였다.

이로써, 그동안 막연하게 서봉사가 12세기 창건되었을 것이라는 인식<sup>47)</sup>을 바꾸는 계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 또는 나말여초 조성된 것으로 인식되었던 용인지역 불교석조미술품<sup>48)</sup>을 재인식할 수 있는 轉機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44) 皇甫慶, 「考古資料로 본 龍仁지역 新羅文化의 변천과정」, 『한국고대사탐구』,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1.8, p.142.

45) 『高麗史』卷2, 世家2, 太宗 26年 4月. “其二曰 諸寺院 皆道詵推占山水順逆而開創 道詵云 吾所占定外 妄加創造 則損薄地德 祚業不永 朕念後世國王公侯后妃朝臣 各稱願堂 或增創造 則大可憂也 新羅之末 競造浮屠 衰損地德 以底於亡 可不戒哉”

46) 許興植, 「佛敎와 融合된 社會構造」,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90, p.8.

47) 崔文煥은 1185년의 기년이 있는 현오국사탑비와 「大匠之耒(衣?)三造瑞峯」銘기와, 「瑞峯寺/O倉門(?)」銘기와 등 명문와를 바탕으로 서봉사가 12세기에 조영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崔文煥, 「龍仁 瑞峯寺址 出土銘文瓦 研究」, 『文化史學』 47, 韓國文化史學會, 2017.6, pp.64-68.

48) 皇甫慶, 앞의 논문, 2011.8, pp.140-142.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서봉사 불교석조미술품의 조성배경과 미술사적 의의를 살펴보겠다. 우선 서봉사가 고려 초에 조성된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에 앞서 불상대좌가 9세기 후반의 것과 유사하고 나말여초 기와 편이 수습되었음에도 통일신라시대 창건 또는 조성되었다고 보지 않는 이유를 먼저 밝히자면, 통일신라 문화를 대표하는 비로자나불과 정형기 석탑이 용인지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sup>49)</sup> 그렇다면, 통일신라 문화의 기반이 없었던 용인지역에서 수십 년 만에 통일신라 양식을 재현한 불교석조미술품이 조성될 수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이는 고려 초 불교미술의 양상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고려 건국 이후 불교미술양식은 대체로 통일신라 양식의 바탕 위에 신앙식이 등장하여 점차 확산되고 서로 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통일신라 양식을 계승한 전통양식은 왕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신앙식은 지방에서 왕도인 개경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sup>50)</sup> 이러한 시대사조를 고려한다면, 고려 초 서봉사에서 통일신라 느낌이 물씬 풍기는 불교석조미술품이 조성되는 것은 결코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10세기 후반 용인지역에 서봉사를 창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서봉사지 석탑 부재와 유사점이 많은 하남 하사창동 삼층석탑(그림 25)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51)</sup> 앞서 잠깐 지적하였지만, 하사창동 삼층석탑은 주변에서 「辛酉廣州桐寺」銘 기와가 수습되어 961년 창건된 廣州 桐寺 조영 당시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sup>52)</sup> 그런데, 961년은 광종이 峻豐으로 연호를 바꾸고 개경을 皇都라 하는 등 皇帝國을 선포한 960년 바로 직후이다. 특히, 광주지역은 광종 즉위 전까지 대립하던 王規의 근거지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마도 광종은 광주지역 호족을 완전히 제압하고 황제가 된 그의 치적을 대외에 내세우기 위해 삼층석탑과 함께 현존 最大의 鐵佛(그림 26)을 조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53)</sup> 이와 더불어 주목할 것이 安城 梅山里 石造菩薩立像(그림 27)이다. 이 보살상은 고려 신앙식 석불로 면류관형 보관을 착용하고 있으며, 고려 광종대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4)</sup> 이 상에서 주목할 점은 입지인데, 개경에서

49) 정성권은 통일신라 문화의 상징적 도상으로 석조비로자나불좌상과 정형기 석탑을 상정하고, 그것들이 속 초-인제-홍천-횡성-원주-안성-평택을 잇는 선 이남에서만 분포하고 있어, 앞서의 지역을 잇는 선이 통일신라 문화의 북방한계선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정성권, 「불교미술 분포를 통해 본 신라문화권의 북방한계」, 『新羅史學報』 46, 新羅史學會, 2019.8, pp.219~252.

50)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pp.181~183.

51) 이 석탑 옆에는 오층석탑이 있는데, 오층석탑은 고려화가 진전된 석탑이어서 삼층석탑에 비해 조금 늦은 시기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52) 文明大, 「廣州 春宮里 桐寺址發掘調査 報告」, 『板橋~九里·神葛~半月間 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 忠北大學校博物館·京畿道, 1988; 嚴基杓, 앞의 논문. 2011.6, p.315.

53)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p.75.

54) 丁晟權, 「安城 梅山里 石佛立像 研究-高麗 光宗代 造成說을 제기하며-」, 『文化史學』 17, 韓國文化史學會, 2002.6, pp.287~312; 陳政煥, 「高麗前期 新樣式 石佛의 展開와 造成背景」, 『美術史學研究』 287, 韓國美術史學會, 2015.9, pp.5~27.



그림 25  
河南 下司倉洞 鐵佛坐像



그림 26  
河南 下司倉洞 三層石塔



그림 27  
安城 梅山里 石造菩薩立像

삼남지방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상의 분기점인 竹州山城 동편에 바로 이 보살상이 서있다.<sup>55)</sup> 이 상은 국가의 권력이 황제인 광종에게 있음을 대내외에 드러내기 위한 상징물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56)</sup> 이와 마찬가지로 서봉사가 위치한 광교산 일대 역시 개경에서 하삼도로 가는 교통로가 결절되는 지역으로 교통의 요지였던 곳이다.<sup>57)</sup> 앞서의 두 사례, 서봉사의 입지조건, 광종대 화엄종이 주도적 종파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sup>58)</sup> 서봉사는 광종의 왕권강화 차원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9)</sup>

그렇다면, 앞서 지적하였듯이 현오국사의 행적과 무관한 서봉사에 현오국사탑비가 조성된 이유가 궁금해진다. 일반적으로 고승의 탑비는 고승과 인연을 맺었던 곳에 건립되었다.<sup>60)</sup> 예외적으로 제자 가운데 유력자가 주석하였던 사찰에 탑비를 건립한 사례(奉化 太子寺 真空大師塔碑), 직계문도들이 자신들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인정받기 위해 조성한 사례(칠곡 선봉사 대각국사탑비) 등이 있기는 하다.<sup>61)</sup> 그러나 서봉사 현오국사탑비의 비문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다(사료 C·D).

55) 丁晟權, 위의 논문, 2002.6, p.297.

56) 陳政煥, 위의 논문, 2015.9, p.17.

57) 徐榮一, 「龍仁의 古·中世 交通路와 駒城 地域」, 『文化史學』 45, 韓國文化史學會, 2016.6, pp.41~62.

58) 許興植, 「華嚴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90, pp.180~208; 정병삼, 「고려 초 단문의 불교계 활동과 보원사」, 『사학연구』 132, 한국사학회, 2018.12, pp.316~340.

59) 창건 당시 서봉사가 화엄종 사찰이었다는 것은 역으로 현오국사가 화엄종 승려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60) 최연식, 「高麗時代 高僧의 僧碑와 門徒」, 『한국중세사연구』 35, 한국중세사학회, 2013.4, p.14.

61) 최연식, 위의 논문. 2013.4, p.24; 최연식, 위의 논문. 1993.12, pp.48~52.

[사료 D] 門인들이 行狀을 갖추어 임금께 건의하기를, “우리 스님의 遺骨이 이미 陰宅에 나아갔으니, 下詔하시어 行狀비를 세울 수 있도록 감히 誠請하옵니다”라 하였다. 그리하여 임금께서 臣 知命에게 명하여 碑銘을 지으라 하였으나, 臣은 별다른 재주가 없고, 대강 문자를 조금 알 뿐이어서 군이 (결락) 사양하였으나, 마지못하여 門人이 기록한 行狀에 의거하여 억지로 서술하고 銘하여 이르되 …… 大定 25년 乙巳 2월 일에 門人 등이 왕명을 받들어 서봉사에 비를 세우고 興王寺 大師 敏求는 글자를 새기다.<sup>62)</sup>

한편, 탑비는 문도들이 건의하여 종린이 입적한 6년 후인 1185년에 문인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비록 문도들의 人名이나 건비 내력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태자사나 선봉사가 문도들의 거점사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sup>63)</sup> 현오국사탑비 건립 당시 서봉사가 현오국사를 따르던 문도들의 거점사원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어떤 연유에서 종린의 문도들이 서봉사에 탑비를 세웠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종린의 위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탑비에 새겨진 종린의 공식 직함은 高麗國 大華嚴 浮石寺 住持 贈諡玄悟國師였다. 얼핏 그가 주석했던 부석사 등에 그를 따르는 문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종린이 종실에 속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종친의 경우 지방사원의 주지가 되더라도 개경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sup>64)</sup> 그가 주석했다는 사찰들은 명목상 주지였을 뿐, 문도를 형성할만한 유대관계를 맺지는 못했었을 것으로 보인다.<sup>65)</sup> 즉 현오국사의 문도들은 개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왕자도 왕의 서자인 小君도 아닌, 국왕(예종)의 庶姪에 불과한 종린이 국사로 추증된 배경이 궁금해진다. 고려시대 왕실 출신으로 승려가 된 37명(小君 25명 포함) 중 7명이 국사로 책봉되었는데,<sup>66)</sup> 종린만 유일하게 국왕의 出子가 아닌 인물이다.<sup>67)</sup> 국왕의 서자인 소군이 국사나 왕사는커녕 승통이나 대선사와 같은 높은 승계를 받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sup>68)</sup>

62) 李智冠, 앞의 책, 2000, pp.484~486.

63) 최연식, 앞의 논문, 2013.4, pp.25~31.

64) 이정훈, 「고려전기 왕실 출신 승려들의 출가와 활동」, 『역사와 현실』 71, 한국역사연구회, 2009.3, pp.111~118.

65) 왕실 출신 승려들이 개경에 머물 수 있었기 때문에 대각국사나 혜덕왕사 등은 동시에 여러 사찰의 주지를 겸직할 수 있었다. 이정훈, 위의 논문, 2009.3, p.111.

종린 역시 1146년(의종 원년) 수좌로 진급한 후 한 해에 귀신사·국태사·중흥사·부석사 등 4개의 사원의 주지를 맡은 것으로 보아, 그러한 전례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66) 남동신, 「고려 중기 왕실과 화엄종-왕실 출신 화엄종 5 국사(國師)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9, 한국역사연구회, 2011.3, p.31.

67) 태조부터 명종 이전까지로 좁혀보더라도, 왕실 출신 승려 19명 중 왕자가 7명, 소군이 11명인데, 종린만 종실이다. 이정훈, 위의 논문, 2009.3, p.96.

68) 이정훈, 위의 논문, 2009.3, pp.107~108.

종린에 대한 대우는 파격이라 할 수 있다.

종린이 종실 출신에서도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대각국사 이후 국사로 책봉된 5명의 출신만 보아도 확연히 드러난다. 이들은 모두 화엄종 계통의 국사다. 이렇게 화엄종 계통 국사가 연달아 배출되게 된 배경은 文宗(재위 1046~1083)이 불교교단 숙정을 위해 화엄종과 유대 강화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sup>69)</sup> 화엄종 5국사 가운데 첫 번째는 문종의 4자인 대각국사의 천(1055~1101)이다. 이 뒤를 이어, 肅宗(재위 1095~1105)의 4자인 원명국사 징엄(1090~1141), 현오국사 종린(1127~1179), 인종의 4자 圓敬國師 冲義(?~1182), 熙宗(재위 1204~1211)의 5자 冲明國師 覺膺(13세기)<sup>70)</sup>이다. 이처럼 왕실 출신 화엄종 5국사 가운데 종린만 국왕의 자식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린의 백부가 되는 예종은 서자인 廣智大禪師 覺老와 범상종의 覺倪와 覺觀이 있었지만, 嫡子는 훗날 인종이 되는 王楷만이 있었다. 소군은 왕실의 안정을 위해 출가하되 높은 승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징엄의 후계자가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sup>71)</sup> 그런데 예종의 형제 가운데, 출가한 징엄과 일찍 죽은 上黨侯 王侁을 우선적으로 제외하고, 대방공 왕보, 大原公 王倬, 齊安公 王偁는 모두 아들 1명만 있었고, 通義侯 王僑는 딸만 있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인종 즉위 후 先王(예종)의 서질인 종린이 징엄의 후계자로 낙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앞서 지적하였듯이 인종 즉위 과정에서 유배지에서 죽은 숙부 왕보에 대한 일종의 보상 또는 왕실 화합을 위한 모종의 조치가 바로 종린의 출가와 국사 추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현오국사탑비의 건립과 관련하여 다른 국사들의 입적 직후 정황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의천은 문도들에 의해 탑비와 함께 묘지명이 만들어졌지만, 징엄의 경우 묘지명만 만들어진 정황만 확인될 뿐이다.<sup>72)</sup> 충희는 입적 후 문도들에 의해 寧越 興教寺에 세워졌

69) 남동신, 위의 논문, 2011.3, pp.44~46.

물론, 이 과정에서 法相宗과 유착한 仁州李氏를 견제하려는 실질적인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崔柄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祐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韓基汶, 「高麗太祖의 佛教政策 -創建 寺院을 중심으로-」, 『大丘史學』 22, 大丘史學會, 1983.

남동신 역시 인주이씨 등 유력 가문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교단 숙정이라는 대의명분이 앞섰을 것으로 보았다. 남동신, 위의 논문, 2011.3, p.46.

70) 각옹의 형은 대선사 鏡智인데, 입적 후 圓靜國師로 추증되었다. 각옹에 이르러서는 왕실 출신이 화엄종과 선종 양종의 국사를 배출하게 되었는데, 이는 선종을 후원하였던 崔氏政權을 고려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왕실과 화엄종과의 유착관계는 점차 얽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남동신, 위의 논문, 2011.3, pp.54~55; 陳政煥, 「任實 珍丘寺의 所屬 宗派 變化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40, 韓國文化史學會, 2013.12, pp.98~99.

71) 이정란, 「高麗時代 小君과 國塚」, 『韓國史研究』 122, 韓國史研究會, 2011.3, pp.29~62.

72) 『故圓明國師墓誌』, “上聞之震悼不視朝三日冊贈國師諡曰圓明 勅吊會葬一如大覺故事二十八日茶毗 于興王寺城西天德山之南麓五月二十三日收骨奉安于承天府藥山村之北原仍 命臣適爲之銘曰”

다고 전한다.<sup>73)</sup> 한편, 각옹과 관련된 묘지명 혹은 탑비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사로 추증되었음에도 곧바로 탑비를 건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무신정변 이후 세워진 현오국사탑비가 기존 탑비에 비해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기도 한다.<sup>74)</sup> 그러나 왕실과 화엄종과의 유대 관계가 13세기 중엽까지 이어졌다. 비록 匠人の 능력이 뒤떨어지거나 후원세력의 勢가 축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탑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형의 기본요소가 쉽사리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조형미의 쇠퇴로만으로 현오국사탑비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II장에서 현오국사탑비 비신과 왕실 묘지명이 유사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서 징엄 입적 후 묘지명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징엄이 입적할 당시 국왕인 인종 재위 중 ‘李資謙의 亂’과 ‘妙淸의 亂’ 등 왕권이 심각하게 위협할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인종은 이 위기를 극복한 뒤 유교적 행동양식과 상징체계를 국가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였다.<sup>75)</sup> 마침 징엄이 입적하자 불교계에 대한 견제와 함께 유교적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왕실의 예법을 따라 묘지명만 제작할 것을 하명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교적 양식 또는 규범이 불교에 영향을 끼쳐 대외적으로 드러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유학자 김부식이 찬한 보현사 사적비라 할 수 있다. 또한, 징엄의 뒤를 이은 국사들도 전례에 따라 묘지명만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종린 입적 당시 국왕은 명종이었다. 명종은 무신정변 직후 즉위하였는데, 그의 재위기는 李義方-鄭仲夫-慶大升-李義旼 등으로 무신정권의 실권자가 수시로 바뀌었고 농민과 천민의 저항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명종은 결국 1197년 崔忠獻(1149~1219)에 의해 쫓겨나고야 만다. 다만, 李義旼執權期(1184~1196)에는 왕실의 위상이 약간 회복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76)</sup> 이러한 왕실과 무신정권 간 유화분위기에 편승하여 화엄종단이 위축되었던 위상 회복을 위해 현오국사비의 건립을 요청하였고, 명종 입장에서도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이를 승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려고 개경은 아니면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 있는 사찰 가운데, 왕실과 관련을 맺고 있던 서봉사를 탑비 건립지로 정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묘지명을 모티프로 최대한 화려한 장엄을 절제한 탑비를 세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73) 『新增東國輿地勝覽』卷16, 寧越郡, 佛宇, 興教寺.

74) 이들은 그 이유를 1170년 무신정변 이후 무신세력에 대항했던 교종세력들이 도태되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閔賢九, 「月南寺址 眞覺國師碑의 陰記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36, 震檀學會, 1973, pp.14~38; 박상준, 앞의 논문, 2015, pp.687~688.

75) 김정권은 인종대 “유교의 정치적 행동양식, 정치적 상징, 정치적 감정 내지 정서 등이 주류를 형성”하였다고 보고 있다. 김정권, 「고려 仁宗代 ‘維新之政’의 추구와 정국동향」, 『韓國史研究』133, 韓國史研究會, 2006.6, p.29.

76) 이정신, 「고려시대 명종 연구」, 『韓國人物史研究』6, 韓國人物史研究會, 2006.9, pp.159~184.

또한,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화엄종 문도들의 현오국사탑비 건립 요구를 명종이 승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1182년 입적한 충희의 행적과 관련이 있다. 충희는 인종의 4자이자 명종의 아우이기도 하다. 그는 1147년 인종의 명으로 종린에게 출가하였다. 그런데, 1177년에는 逆謀 혐의로 고발당하였고 1180년에는 母后의 간병을 핑계로 궁궐을 드나들며 宮女·公主와의 추분에 휘말리기도 하였다.<sup>77)</sup> 이러한 행적에도 불구하고 1182년 충희가 입적하자 명종은 전례에 따라 그를 국사로 추증한다. 이러한 명종의 처사는 화엄종 문도들을 자극하였을 것이다. 문종이 불교 교단의 부패와 타락을 경계하면서 다시 왕실과 인연을 다시 맺게 된 화엄종단의 입장에서 충희의 행적은 그동안 그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한 충희가 국사로 추증되자 화엄종단은 심하게 동요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단에서는 의도적으로 충희의 행적을 숨기기 위해, 왕실에서는 동요하는 화엄종단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도승의 본분에 가장 충실했던 종린<sup>78)</sup>을 띄울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sup>79)</sup> 즉, 서봉사 현오국사탑비의 건립은 무신정권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실과 화엄종단의 재도약의 발판을 위한 행위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탑비가 건립된 이후 서봉사는 어떠했을까. 앞서 탑비가 두 차례 이상 옮겨질 정도로 부침을 겪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고려시대에도 최소 한 차례는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시점 혹은 주체는 누구였을까. 이와 관련된 단서를 『太宗實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료 E).

[사료 E] 議政府에서 名刹로써 여러 고을의 資福寺에 대신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 여러 고을의 자복사를 모두 名刹로 대신하였는데, …… 天台宗에 …… 龍駒의 瑞峰寺이고<sup>80)</sup>

고려 태조는 훈요십조의 첫 번째로 사원의 종파 변경은 엄격히 금지한 바 있다.<sup>8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엄종 사찰이던 서봉사가 어느 때인가 천태종 사찰로 바뀐 것이다. 고려시대 천태종 사찰이던 耽津 萬德寺와 山陰 地谷寺가 조계종으로 소속을 바꾼 사례나 조계종 사찰이었던

77) 『高麗史』卷90, 列傳3, 宗室, 仁宗; 卷99, 列傳12, 諸臣, 崔惟清·崔訛; 남동신, 앞의 논문, 2011.3, p.52.

78) 남동신, 앞의 논문, 2011.3, p.51.

79) 수도승의 본분에 충실했던 종린의 모습은 비문의 “진실로 正覺을 구함에는 同敎의 교리만한 것이 없다. 이에 귀의하는 마음으로 服膺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참으로 稀有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李智冠, 앞의 책, 2000, pp.480~481.

80) 『太宗實錄』太宗 7年 12月.

81) 『高麗史』卷2, 世家2, 太祖 26年 4月. “其一曰 我國家大業 必資諸佛護衛之力 故創禪敎寺院 差遣住持焚修 使各治其業 後世 姦臣執政 徇僧請謁 各業寺社 爭相換奪 切宜禁之”

任實 珍丘寺가 천태종으로 그 소속을 바꾼 사례를 찾아볼 수 있지만,<sup>82)</sup> 이는 같은 선종에서의 종파 변화였을 뿐이다. 서봉사처럼 교종에서 선종으로 소속이 바뀐 것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조선 태종의 불교개혁은 기존의 종파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sup>83)</sup> 서봉사가 천태종으로 소속을 바꾸었다면, 그 시기는 당연히도 고려후기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계기가 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쉽게 머릿속에 자연재해를 떠올릴 수 있겠으나, 앞서 지적한 서봉사가 있는 광교산 일대가 교통로상의 거점이었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몽골군은 1231년 1차 침입 당시부터 경기 남부 일대를 유린하였다.<sup>84)</sup> 그 이듬해인 1232년 2차 침입 당시에도 살리타이(撒禮塔)를 대장으로 삼은 몽골군은 광주와 용인 일대를 침공하였는데, 몽골군은 廣州城에서 고려군에 졌으며 處仁部曲에서는 部曲民과 僧徒들에 의해 살리타이가 죽기까지 한다.<sup>85)</sup> 특히, 살리타이를 죽인 인물이 승려였다는 점<sup>86)</sup>과 몽골군의 2차 침입이 고려와의 전쟁에서 겪은 유일한 패퇴였다는 점에서, 이후 몽골군의 침략과정에서 용인일대 사원들이 유린의 대상이 되었으리라는 것은 明若觀火하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서봉사는 13세기 전반 몽골의 침입 당시 亡廢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1270년 개경 환도 이후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한 親元勢力들이 망폐된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흡수하기 위해 사찰을 중창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sup>87)</sup> 이 과정에서 원 간섭기 대표적인 權門勢家이었던 趙仁規 家門이 조계종 사찰이었던 수원 萬義寺와 임실 진구사를 중창하면서 천태종으로 바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종파가 바뀌기도 한다.<sup>88)</sup> 요컨대, 조선 초 서봉사가 천태종 소속 사원이었던 이유는 몽골 침입 후 망폐된 서봉사에 속한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기 위해 권문세가가의 의도적으로 중창하면서 해당 권문세가와 관련된 종파에 속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현재의 위치로 탐비 이건과 현존 비부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위치로의 탐비 이건 시기는 4차 발굴조사에서 그 실마리가 확인되었

82) 朴胤珍, 「고려 천태종의 종파 문제-조선초 천태종의 선종 귀속의 역사적 배경-」, 『韓國史學報』 40, 高麗史學會, 2010, pp. 432~433;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12, pp. 98~103.

83) 조선은 1406년 불교사원들을 조계종, 천태종, 화엄종 등 12개 종파 242사로 정리하였고, 자복사로 지정할 당시인 1407년에는 4대 종파를 중심으로 같은 계통의 군소종파가 흡수시키고, 군소종파끼리 통합하여 7개 종파로 축소시켰다. 許興植, 「朝鮮初의 寺院과 所屬宗派」,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90, pp. 522~548.

84) 金庠基,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p. 432.

85) 尹龍燦, 「蒙古의 2차 侵寇와 處仁城 勝捷-특히 廣州民과 處仁部曲民의 抗戰에 주목하여-」, 『韓國史研究』 29, 韓國史研究會, 1990. 6, pp. 53~73; 강재광, 「對蒙戰爭期 處仁城勝捷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廣州道 방어 및 部曲民·僧徒의 항전과 연관하여-」, 『한국중세사연구』 53, 한국중세사학회, 2018. 5, pp. 225~255.

86) 『高麗史』 卷23, 世家23, 高宗 19年 12月. “撒禮塔攻處仁城 有一僧避兵在城中 射殺之”

87) 망폐된 사원에 대한 중창과 증수가 佛心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恭愍王이 田民辨整都監을 설치하고 中外에 알리는 포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高麗史』 卷132, 列傳45, 辛旽;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12, p. 101.

88) 黃仁奎, 「趙仁規家門과 水原 萬義寺」, 『水原文化史研究』 2, 수원문화연구회, 1998, pp. 77~95; 황인규, 『고려후기 조선초 불교사 연구』, 혜안, 2003, pp. 226~249; 陳政煥, 앞의 논문, 2013. 12, pp. 100~101.

다.<sup>89)</sup> 4차 발굴조사에서는 상단 축대가 폐기된 위에 현재의 탑비가 세워진 것이 밝혀져,<sup>90)</sup> 가장 늦은 시기의 명문와인「崇禎」銘 기와가 제작된 17세기 무렵 혹은 그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현재의 위치로 국사탑비가 이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현존 비부의 제작시기는 조선시대 용인지역 묘비 가운데 1634년 제작된 허기(1536~1601)의 墓礎, 오윤겸(1559~1636) 묘갈(1647년), 이수민(1651~1724) 묘갈(1731년) 등의 비좌의 형태와 서봉사 현오국사탑비 비부의 형태가 유사한 점<sup>91)</sup>이나 조선후기에 탑비가 중건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은 점<sup>92)</sup> 등을 고려할 때, 현오국사탑비의 현존하는 비부 역시 17세기 이후 탑비 자체가 이진될 당시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산110번지, 광교산에 자리 잡고 있는 서봉사지에 남아 있는 현오국사탑비를 비롯한 불교석조미술품의 특징과 조성시기를 파악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서봉사지 불교석조미술품의 조성배경과 미술사적·불교사적 의의를 밝혀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서봉사 역사를 재구성해보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서봉사는 10세기 후반 고려 왕실의 왕권강화를 위해 화엄종 소속으로 창건되었다. 창건 당시 서봉사에는 석탑과 불상이 조성되었는데, 이들은 다음 시기 용인지역 석탑과 석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1185년에는 무신정변과 왕자로서 출가하였던 충희의 비행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왕실과 화엄종단은 반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당시 존경받던 현오국사의 탑비를 화엄종 사찰이었던 서봉사에 건립한다. 다만, 왕실 내 불교에 대한 인식 변화와 더불어 당시의 새로운 사조

89) (재)한백문화재단연구원, 『용인 서봉사지 4차 발굴조사 완료약보고서』, 용인시·(재)한백문화재단연구원, 2017.6.

90) (재)한백문화재단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7.6, p.75.

91) 金右臨, 「龍仁지역 墳墓에 나타난 석물의 특징」, 『丹豪文化研究』6, 龍仁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2001, pp.7~38.

92) 1653년의 鳳林寺 眞鏡大師塔碑 중건, 1701년 松廣寺 圓鑑國師塔碑 중건, 1714년에 중건한 實相寺 秀澈和尚塔碑 등의 사례가 있다. 정선중, 「實相寺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重建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11,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9, pp.182~187.

다만, 그 사유도 제각각인데, 봉림사 진경대사탑비(924년)는 깨진 부분의 명문을 다시 새기기 위한 것이었고, 원감국사탑비(1314년)는 마멸이 심한 비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다.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國書刊行會, 1974, p.273; 정선중, 위의 논문, 2009, p.183.

한편, 1714년의 실상사 수철화상탑비 중건 목적은 넘어진 비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때 현재의 비부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부의 형식은 매우 세련되었는데, 丙子胡亂 이후 사찰 재건 시 축적된 불교미술의 역량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 유교적 양식과 규범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탑비는 기존의 화려한 장엄을 버리고 왕실의 묘지명과 유사한 형태로 변모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몽골 침입 시 서봉사는 망폐되고 마는데, 개경 환도 이후 권문세가에 의해 절이 중창되면서 화엄종에서 당시 중창주의 소속 종파인 천태종으로 그 소속으로 바뀌고 만다. 한편, 유교를 전면에 내세운 조선에서도 서봉사의 법당은 꺼지지 않았다. 태종대에는 자복사로 지정되기까지 하였다. 「成化三年」명 기와와 「嘉靖三十二年」명 기와에서 알 수 있듯, 15~16세기까지도 가람은 중수되었다. 한편, 전란 이후에도 없어진 비부를 다시 만들고 탑비를 이관하였지만, 결국은 법당은 사그라지고 만다.

이처럼 역동적인 역사와 풍부한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사적·불교사적 가치가 매우 큰 서봉사는 어느새 현오국사탑비만 고독하게 서있는 곳이 되어버렸다. 당연히 그동안 연구도 미진하였다. 겨우 최근에 들어서서야 서봉사지 발굴이 이루어져 서봉사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지만, 아직까지 실체를 온전히 밝힐만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필자의 이번 연구 역시 미흡한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牽強附會한 것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를 바탕으로 비교대상의 폭을 넓혀나가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검토한다면 서봉사의 실체에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 또한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 【참고문헌】

『高麗史』

『太宗實錄』

『故圓明國師墓誌』

『贈諡玄悟國師碑銘』

『新增東國輿地勝覽』

(재)한백문화재연구원, 『용인 서봉사지-시굴 및 1차 발굴조사』, 용인시·(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5.

\_\_\_\_\_, 『용인 서봉사지 II-2·3차 발굴조사』, 용인시·(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6.

\_\_\_\_\_, 『용인 서봉사지 4차 발굴조사 완료약보고서』, 용인시·(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7. 6.

국립경주박물관, 『味吞寺址』, 국립경주박물관, 2007.

金庠基,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5.

文明大, 「廣州 春宮里 桐寺址發掘調査 報告」, 『板橋~九里·神葛~半月間 高速道路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 忠北大學校博物館·京畿道, 1988.

박경식, 『한국의 석탑』, 학연문화사, 2008.

용인시·(재)한백문화재연구원, 『용인 광고산 서봉사지』, 용인시·(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5. 9.

李智冠,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 3, 伽山文庫, 2000.

한신대학교 박물관, 『수원 창성사지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약보고서』, 한신대학교 박물관, 2014.

황인규, 『고려후기 조선초 불교사 연구』, 혜안, 2003.

葛城末治, 『朝鮮金石攷』, 國書刊行會, 1974.

강재광, 「對蒙戰爭期 處仁城勝捷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廣州道 방어 및 部曲民·僧徒의 항전과 연관하여-」, 『한국중세사연구』 53, 한국중세사학회, 2018. 5.

金右臨, 「龍仁지역 墳墓에 나타난 석물의 특징」, 『丹豪文化研究』 6, 龍仁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2001.

김정권, 「고려 仁宗代 ‘維新之政’의 추구와 정국동향」, 『韓國史研究』 133, 韓國史研究會, 2006. 6.

- 김종길, 「서봉사지 발굴조사 현황 및 성과」, 용인 서봉사지 학술대회 자료집 『용인 서봉사지』, 용인시·(재)한백문화재단연구원, 2016.
- 김지현, 「통일신라시대 眼象文 석탑 고찰」, 『文物研究』 27, 동아문화재단, 2015. 3.
- 남동신, 「고려 중기 왕실과 화엄종-왕실 출신 화엄종 5 국사(國師)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9, 한국역사연구회, 2011. 3.
- 文明大, 「高麗後期 端雅樣式(新古典的樣式)佛象의 成立과 展開-坐像을 중심으로-」, 『古文化』 22, 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3.
- 閔賢九, 「月南寺址 眞覺國師碑의 陰記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36, 震檀學會, 1973.
- 朴慶植, 「新羅 景文王代의 石造美術에 關한 研究-基壇部 樣式을 中心으로-」, 『史學志』 22, 단국사학회, 1989.
- 朴相俊, 「新羅 下代 塔碑 研究」, 『講座美術史』 29, 韓國佛教美術史學會, 2017. 12.
- \_\_\_\_\_, 「고려후기 탑비, 전통양식의 계승과 변화」, 『東岳美術史學』 17, 東岳美術史學會, 2015.
- 朴胤珍, 「고려 천태종의 종파 문제-조선초 천태종의 선종 귀속의 역사적 배경-」, 『韓國史學報』 40, 高麗史學會, 2010.
- 徐榮一, 「龍仁의 古·中世 交通路와 駒城 地域」, 『文化史學』 45, 韓國文化史學會, 2016. 6.
- 嚴基杓, 「河南 春宮洞 3層과 5層石塔 建立 時期와 依依」, 『先史와 古代』 34, 한국고대학회, 2011. 6.
- \_\_\_\_\_, 「水原 彰聖寺의 沿革과 眞覺國師 千熙의 史蹟」, 『文化史學』 39, 韓國文化史學會, 2013.
- 尹龍燮, 「蒙古의 2차 侵寇와 處仁城 勝捷-특히 廣州民과 處仁部曲民의 抗戰에 주목하여-」, 『韓國史研究』 29, 韓國史研究會, 1990. 6.
- 이정란, 「高麗時代 小君과 國墳」, 『韓國史研究』 122, 韓國史研究會, 2011. 3.
- 이정신, 「고려시대 명종 연구」, 『韓國人物史研究』 6, 韓國人物史研究會, 2006. 9.
- 이정훈, 「고려전기 왕실 출신 승려들의 출가와 활동」, 『역사와 현실』 71, 한국역사연구회, 2009. 3.
- 정선중, 「實相寺 秀澈和尚塔碑의 陰記와 重建에 대하여」, 『불교문화연구』 11, 남도불교문화연구회, 2009.
- 丁晟權, 「安城 梅山里 石佛立像 研究-高麗 光宗代 造成說을 제기하며-」, 『文化史學』 17, 韓國文化史學會, 2002. 6.
- \_\_\_\_\_, 「불교미술 분포를 통해 본 신라문화권의 북방한계」, 『新羅史學報』 46, 新羅史學會, 2019. 8.
- 정병삼, 「고려 초 단문의 불교계 활동과 보원사」, 『사학연구』 132, 한국사학회, 2018. 12.
- 鄭恩雨, 「고려후기 불교조각가 원의 영향」, 『震檀學報』 114, 震檀學會, 2012. 4.
- 陳政煥, 「後百濟 佛教美術품의 特徵과 性格」, 『東岳美術史學』 11, 東岳美術史學會, 2010.
- \_\_\_\_\_, 「任實 珍丘寺의 所屬 宗派 變化에 대한 考察」, 『文化史學』 40, 韓國文化史學會, 2013. 12.

- \_\_\_\_\_, 「益山 深谷寺 七層石塔 出土品の 特徴과 性格」, 『전북사학』 45, 전북사학회, 2014. 10.
- \_\_\_\_\_, 「高麗前期 新樣式 石佛의 展開와 造成背景」, 『美術史學研究』 287, 韓國美術史學會, 2015. 9.
- \_\_\_\_\_, 「신라 하대 선종 미술의 모태, 실상산문의 불교미술품」, 『전북사학』 53, 전북사학회, 2018. 7.
- \_\_\_\_\_, 「통일왕조 고려의 상징, 개태사 불상과 석탑」, 『고려 건국 1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태조 왕건과 개태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국립부여박물관, 2018.
- 秦弘燮, 「韓國의 眼象紋樣」, 『東洋學』 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74.
- 崔箕杓, 「大覺國師의 遺骨安葬과 立碑過程 再考」, 『韓國佛敎學』, 韓國佛敎學會, 2006.
- 崔文煥, 「龍仁 瑞峯寺址 出土 銘文瓦 研究」, 『文化史學』 47, 韓國文化史學會, 2017. 6.
- 崔柄憲, 「高麗中期 玄化寺의 創建과 法相宗의 隆盛」,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 최연식, 「『大覺國師碑』의 建立過程에 대한 새로운 고찰」, 『韓國史研究』 83, 韓國史研究會, 1993. 12.
- \_\_\_\_\_, 「高麗時代 高僧의 僧碑와 門徒」, 『한국중세사연구』 35, 한국중세사학회, 2013. 4.
- 韓基汶, 「高麗太祖의 佛敎政策 -創建 寺院을 중심으로-」, 『大丘史學』 22, 1983.
- 한정호, 「新羅 寺刹의 社會的 機能과 嘉瑟岬寺」, 『불교미술사학』 5, 불교미술사학회, 2007.
- 許興植, 「華嚴宗의 繼承과 所屬寺院」,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90.
- \_\_\_\_\_, 「朝鮮初의 寺院과 所屬宗派」, 『高麗佛敎史研究』, 一潮閣, 1990.
- 皇甫慶, 「考古資料로 본 龍仁지역 新羅文化의 變遷과정」, 『한국고대사탐구』,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1. 8.
- 黃仁奎, 「趙仁規家門과 水原 萬義寺」, 『水原文化史研究』 2, 수원문화연구회, 1998.
- 金송이, 『高麗時代 塔碑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006.
- 李根直, 『新羅 王陵 起源과 變遷』,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06.
- 陳政煥, 『高麗前期 佛敎石造美術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2013.

【Abstract】

## On the features and significance of the Buddhist stone artworks discovered at the site of Seobongsa Temple

Jin, Joung-hwan  
(Gwnagju National Museum)

There is a monument to Monk Hyeono (designated as Treasure No. 9 in 1963) at the site of Seobongsa(瑞峰寺) Temple. In accordance with its status as one of the leading temples in Yongin, the central government designated Seobongsa as a Jaboksa(資福寺) (a temple of worship and prayer for towns)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r. 1400 - 1418) of Joseon. Researchers conducted excavation surveys of the temple site on four occasions in the period 2012-2017, and discovered that a large number of buildings had been built on the six-tiered terraced ground during the Goryeo (918-1392) and Joseon (1392-1910) periods.

This study attempts to reconstitute the history of the temple with the focus on Buddhism-related stone artworks found there, and to shed light on the background to the temple and its significance. An analysis of the main features of the monument to Hyeono and other stone artworks from the temple, along with the period in which they were made, shed light on the reconstruction or renovation of the temple, its background, and its significa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of art and Buddhism.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appears that Seobongsa Temple was established toward the end of the tenth century as a temple belonging to the Hwaecom (Huayan) School of Korean Buddhism in a bid to strengthen the royal family of the Goryeo dynasty. The stone pagodas and Buddha images created and placed in the temple at that time exerted considerable influence on those built or placed in the region in the ensuing period. At that time, the royal family and the Hwaecom School were in crisis due to the misdeeds of the monk Wongyeong, a son of King Injong (r. 1122-1146), and the

turmoil caused by a coup staged by a group of military officers in 1170. In an attempt to improve the situation, the Hwaeom School set up the monument to Monk Hyeono, who was widely respected, at Seobongsa Temple in 1185. It is assumed that the monument was erected in a fashion similar to that adopted for tombs of the members of the royal family, eschewing flamboyance in consideration of the change in the way the royal family viewed Buddhism and the ongoing adoption of Confucian styles and norms. The temple was destroyed during the Mongol invasion but, following the ruler's return to the capital Gaegyeong (present-day Gaeseong), it was rebuilt as a temple of the Cheontae Order under the power of the influential family that worked on its reconstruction. Even in the new Joseon dynasty, which expressed its strong support for Confucianism, the temple survived. As mentioned above, it was even as a Jaboksa(資福寺)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ng. As noted in the inscriptions on the roof tiles found at the site, the temple was renovated again in the fifteenth and sixteenth centuries. The monument was re-made after its destruction during the Mongol invasion, but the light of Buddhism eventually disappeared.

[key words] Seobongsa(瑞峰寺) Temple, Monk Hyeono, Goryeo, Hwaeom (Huayan) School, Jaboksa(資福寺)

투고(접수)일 2019.10.28

심사개시일 2019.12.02

심사완료일 2019.12.09

계재확정일 2019.12.11